

## 2016년 2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0,340,827	전월이월금	2,358,537
지 로	3,476,160	우리은행	3,370,000
국민은행	4,581,000	하나은행	971,000
조흥은행	115,000	신한은행	1,265,000
외환은행	600,000	제일은행	180,000
농 협	1,240,000	기업은행	215,000
우 체 국	70,130	지정기탁	350,000
		교구보조	1,450,000

###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11,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베다니아의 집	1,011,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4,436,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70,000	장기수선총당금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350,000	산재, 진폐환자가정 생활비
<b>지 출총액</b>	<b>19,856,000</b>	<b>잔액(이월금)</b>	<b>385,827</b>

### <쉼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8	0	8	21
베다니아의 집	3	2	0	5
벗들의 집	11	0	1	10
사랑의 집	12	0	0	12
마고네공부방	8	2	0	10

### [신앙인과 신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에 비유합니다. 한 식물 개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꽃이듯,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민주주의에서 그 국민의 뜻으로 입법권자, 혹은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는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행위라는 비유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을 정할 사람을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선거가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뽑아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누구를 뽑던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푸념합니다.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누가 되던지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출마라 생각하고 선거를 해도 소용없다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에 밝은 사람쯤으로 폄하하며, 오히려 정치에 관심 없어 뉴스도 신문도 보지 않는 자신의 태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선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날은 휴일로서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뽑는 게 좋은지 비교해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귀찮아하고 그냥 하루 출근하지 않고, 등교하지 않는 것이 좋아 무슨 일을 하며 공짜로 주어진 휴일 하루를 보낼까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산에 갈까, 극장에 갈까, 누구를 만나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선거를 하면 좋지만 안해도 상관 없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들어있습니다. 나 하나쯤 투표 하지 않는다 해서 세상이 망하지도 않으니 복잡한 생각은 말고 낮잠, 소풍, 데이트로 그 날을 보낼 계획에 마음이 더 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필요없다, 복잡하다, 나하나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선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마르 10, 42)"라고 말씀하시며 권력자들의 행태를 나무라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스스로도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러 온 사명을 강조십니다.(마태 20, 24-28) 또, 제자들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가장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마르 9, 33-35)

신앙인에게 선거는 그렇게 봉사할 사람, 희생할 사람, 누군가 대신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일 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고 학력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후보자가 얼마나 약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 사안에서 얼마나 가장 작은 이를 배려했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만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민족의 통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선거에 소극적인 것이 당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 손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기에 선거는 신앙인의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내는 일은 봉사나 자선만큼이나 소중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 세상 모두가 누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공지사항

###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4월 후원미사는 18일, 5월 후원미사는 16일, 6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6년 2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5명입니다. 그 중 필리핀 환자(여, 52세, 기혼, 베이비시터)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환자는 2013년에 입국하여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몽우리가 잡혀 환자가 직접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CT, 초음파, 혈액 검사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월 19일에 필리핀 공동체 담당 신부님께서 이주노동자상담실로 환자의 재정 사정과 병을 전하며 정확한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도티병원 진료결과 의사 소견으로 조직 검사를 하면 100% 확실히 판명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이 유방암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암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으면 더 좋지만 환자가 항암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광범위 절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나 수술 후에도 있을 항암치료비 걱정과 수술이 이 환자에게 큰 걱정입니다.

3월 9일에 서울의료원에서 광범위 절제술을 받았고 아직 환자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며 항암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쾌유를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8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가 올해로 8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행사는 4월 10일(일) 오전 11시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부 축복미사(조교만 주교님 주례)로 시작하여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과 전통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이들이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후원회원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4.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부모교육



요리수업